

은성코퍼레이션, 구조조정으로 흑자전환

극세사 섬유 제조기업 은성코퍼레이션이 2005년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른 2006년 1/4분기 흑자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은성코퍼레이션은 4월25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에는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3600원까지 올라 거래 됐으나 오후에는 지수 전반의 하락반전에 영향을 받아 3.7% 하락한 3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은성은 2006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3.6% 상승한 93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4억7000 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2005년말 나노테마 급부상으로 12월 한 때 8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은성코퍼레이션은 2006년초 급전직하해 주가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이용성 홍보팀장은 “연초 갑작스런 폭락장세 속에서 나노테마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어 주가가 반토막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내부적으로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의 매출구조는 청소용품인 극세사 클리너가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목욕용품이 25%를 차지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어 추후 본격적 성장을 가능할 핵심 요소는 국내외 대형 반도체기업들에 클린룸 설비인 극세사 필터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은성은 이를 위해 필터 제조기업들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충북 음성에 완공된 나노섬유 대량생산시설을 통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이며 현재는 판매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7>